

문·시진핑 통화... “한중 발전 기대”

시 주석 “수교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중대한 우려·정당한 이익 상호 존중해야”

문 대통령 “시 주석 평가 공감... 실용적 전략동반자 관계 발전시켜 나갈 것”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중국 중앙(CCTV)과 중국 외교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인사를 전하고 “중국과 한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지역 내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한중 양국은 수교 25년 동안 축적한 성과를 거둬고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면서 “양국은 수교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중대한 우려와 정당한 이익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구동화이(求同和異·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공감을 확대) 하도록 노력하고 갈등을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 정부는 중국 측의 중대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실제 행동으로 양국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하는 것은 양국 국민의 공동 이익과 지역의 평화 안정에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줄곧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이는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평화와 안

전의 대세에 부합되는 것”이라 역설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대한 시 주석의 평가를 공감한다”면서 “한국은 한중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중국과 함께 양국 협력 관계 수준을 높이며 실용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인적으로 중국의 중대한 우려 사안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중국 측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밖에 한국은 중국과 함께 북핵 6자회담 재개, 한반도 비핵화 실현 등 목표를 실현시켜려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높게 평가하면서 해당 구상이 한중 양국을 포함한 지역과 국가에 더 큰 발전을 가져다줄 것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약 40분 동안 지속된 통화에서 두 정상은 또 향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조속한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된다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

시진핑 주석은 또 지난 9일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통화버스 화재 사고로 한국인 유치원생 10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희생 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가족에게 위로와 전하면서 사고 수습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위로와 중국의 사고 대처에 고마움을 표했다. /뉴시스

조국 “검찰개혁 당면... 文 의지 확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 교수는 11일 “검찰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공정하게 사용돼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며 검찰개혁에 나설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임 수석비서관 발표 자리에서 검찰 개혁 구상과 관련한 질문에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과거 정부에서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초기에, 미연에 예방됐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와 관련, “공수처 신설은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협조해 주실 것”이라며 “공수처 신설은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는 문제가 있어서 청와대와 국회가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모두가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 및 인사개입 등에 대한 민정수석의 기존 관행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사표시”라며 “이 부분에 대통령의 철학은 확고하고, 저도 그 철학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개혁을)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해온 그동안의 민정수석의 관행에 대해서는 “그런 관행자체가 완전히 틀렸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며 “비 검찰출신인 제가 (민정수석)와 있다는 얘기는 검찰을 통해서 전화해서 이렇듯(수사지휘)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정수석이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민정수석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없다. 그것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기준과 관련 “검증에는 법적인 원칙이 있다. 여러가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문제인데, 법과 규칙에 따라서 건조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인사수석이 능력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모으면 저는 법규에 따라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도의회, 완주마더쿠기영농조합 방문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마을활성화연구회’는 11일 푸드인 완주 마더쿠기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연구활동을 펼쳤다.

백경태 대표의원을 비롯한 ‘마을활성화연구회’ 의원들은 전북도의 마을기업의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푸드인 완주 마더쿠기영농조합법인의 현황을 둘러보면서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강조하며 소득도 얻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야 할 것을 요청했다.

백경태 의원은 “오늘 방문한 마을기업은 지역 농산물을 우선 이용하고 마을내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며 8억여 원에 이르는 연간 매출액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등의 우수 마을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런 사례가 도내 다른 마을 기업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회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홍 기자



신임 참모진들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경내에서 신임 민정·인사·홍보수석비서관, 총무비서관과 산책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 “미래 위해 더욱 분발”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며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김광수 도당위원장과 김중희 의원을 비롯한 전정희 위원장, 이도영 도의원, 이미숙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광수 위원장은 “도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새정부가 국민통합과 개혁과제 완성, 전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23.70%라는 의미있는 지지율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가능성도 남겨줬다”고 덧붙였다.

김중희 의원은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며 “전북의 자존심을 세우고 전북정치의 회복을 위해 일선우일신(日新又日新) 하겠다”고 말했다. /인재홍 기자

국민의당 지도부 총사퇴

국민의당이 11일 박지원 대표가 제안했던 지도부 총사퇴를 최종 의결하는 등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40여분 동안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와 비공개 최고위를 연이어 연 끝에 지도부 총사퇴를 최종 의결했다.

이로서 박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이날부로 모두 사퇴하며, 주승용 원내대표가 대표직무대행을 맡아 다음 주께 치러질 신임 원내대표 경선까지 당을 이끈다.

박 대표는 당초 신임 원내대표 경선이 마무리되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이 완료되면 당무위원회를 열어 인선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식 사퇴할 방침이었지만, 문병호 수석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구성원들이 즉각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직후 박 대표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신임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16일께 가 유력하다. /뉴시스

김승환 교육감 “새 정부와 다양한 소통채널 생길 것”



신임 참모진들과 함께

“지난 정권 동안 발생했던 갈등은 사라질 것 기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예산 해결 등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나타냈다.

11일 김승환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와는 다양한 소통채널이 생길 것”이라며 “지난 정권 동안 발생했던 갈등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해 언급한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정부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해결을 약속했다”며 “이제 100% 국비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해은 기자

이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확충해야 한다”며 “내국세 교부율을 현재 20.27%에서 5% 정도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새 정부는 이미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도민들의 이익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 대입제도 개혁, 고교 무료교육 등도 언급했다. /정해은 기자

정우택 “洪, 당권 도전하지 않을 것” “탈당파 복당 재논의 필요...차기 지도부 몫”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홍준표 전 후보의 당권 도전에 대해 “지금 막 대선에서 떨어졌는데 또 당권에 출마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같이 말하며 “본인의 문제지만 지금 제 생각은 당권도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누차 이번엔 자기가 만약 당선이면 안 되면, 심지어 저한테는 더 이상 정치할 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해은 기자

정 원내대표는 홍 전 후보의 특별 지시로 일괄 복당된 바른정당 탈당파 13인에 대해서는 “당시 홍 후보는 그렇게 하면 지지를 더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지만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제 판단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이 정해진 요인 중 하나가 그거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다”고 홍 전 후보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절차의 문제도 있다”며 “소위 당무위원권이 당헌 104조의 규정을 갖고 말하는데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초당전적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다”며 “무효소송을 내겠다는 의원서부터

예컨대 바른정당으로 나간 사람들과 소위 마음의 양금을 아직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당내에서 재론이 돼서 소위 진박과 비박의 싸움, 탈당파 입당의 싸움, 이런 소용돌이로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잘 마무리하기는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당헌당규 규정을 보면 소위 해당 행위를 하고 나간 탈당 인사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입당 여부라든지 여러 규정 이 최고위 또는 비대위에 권한이 있다”며 비대위 논의의 결과에 따라 복당이 거절될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며 “이 문제는 차기 지도부, 정식 지도부가 나오면 거기서 논의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재도전



우원식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2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3선인 우 의원은 지난 1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우상호 현 원내대표에게 결선 투표 끝에 역전패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원내대표에 재도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를 성공시켜내야만 청년시절부터 꿈인 ‘국민의 삶’과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해야 할 간절하고 절박한 과제다. 질서 있는 개혁을 위해서 당정청 간 협력, 야당과의 협치, 국민과 소통의 길을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우 의원은 “둔둔한 대통령을 단단한 민주당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 원내에 100일 민생상황실을 당선되자마자 가동하겠다. 초기에 분출되는 개혁요구를 질서 있게 수렴하고 치밀하게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차기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부조직개편협상 등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협상이 기다리고 있다”며 “여야 협상을 주도해나갈 충분한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접수를 한 뒤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뉴시스

민주당 전북도당 국민주권 선대위, 해단식 가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는 11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 해단식을 가졌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김춘진 위원장, 황현 도의장, 김명지 전 주시위장, 유희대 베스트 전북 상임대표, 김병배 도의회 부의장, 최은희 도의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충중 사무처장의 대선 결과 보고 및 인사말, 격려 순으로 진행됐다.

김춘진 위원장은 “춧발민심의 승리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소야대 정국 가운데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며 “겸손하게 도민 의견을 경청하고 뜻을 받들어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된다면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황현 도의장은 “지난 총선에서 도민들께서 재책을 들었지만 다시 민주당에 성원해 주셨다. 잊지 말아야 한다”며 “반드시 민주당이 중심이 되는 전북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인재홍 기자